

금남지하상가 뒷집진 광주시

기부채납 두달 앞두고 재계약 등 대책 지지부진

220여 점포 사용권리 소멸 ... 2~3년간 유예 주장도

광주 금남지하상가의 기부채납 시기가 두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관리·운영권을 넘겨 받게 될 광주시가 아직까지 활용방안을 내놓지 않는 등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의회 조광항 의원(민주·비례)은 16일 제179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시 동구 금남지하상가 1공구의 기부채납 이후 재계약이나 활용방안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지난 1989년 금남로3가~전일빌딩

에 조성된 금남지하상가 1공구는 민간투자자인 금남기업의 20년 무상사용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오는 8월말 광주시에 기부채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상가에 입주해 있는 220개 점포에 대한 사용권리도 소멸하게 된다.

하지만 광주시는 광주도시공사에 금남지하상가의 관리권을 부여한다는 방침만 세워놓은 채 위탁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 입점자 재계약과 관련하여도 공개경쟁입찰, 원본양자 우선, 세입자 우선, 원본양자·세입자 합 등의 4가지 방안이 대해 고심하고 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조 의원은 "타 시·도의 경우 전국 72개 지하상가 가운데 35개(48.6%)가 시·도의 지하상가 사례 등을 수집하고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다"며 "원칙과 기준에 입각해 상가 입점자를 선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벌금 못내는 서민
사회 봉사료 대체
300만원 이하때 가능

오는 9월 말부터 경제적 이유로 인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지 못하는 서민들이 교도소에 가지 않고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6일 오전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오는 9월 26일 시행되는 개정안은 사회봉사 신청이 가능한 벌금의 상한액을 300만 원으로 정했다. 그러나 사회봉사는 경제적 자력이 없어 벌금을 미납한 때에만 신청할 수 있다. /연합뉴스

神父들 젊어졌다

30~40대가 주류 ... 광주교구도 40%나

천주교 성직자 연령분포

'성당'하면 머리가 희끗희끗한 신부님을 떠올리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30~40 세대'가 실제 사목 현장의 대세가 되고 있다는 통계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의장 강우일 주교)가 최근 발표한 '한국 천주교회 통계 2008'에 따르면 광주교구 소속 신부 228명 가운데 30~39세가 40.3%인 92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40~49세로 32.8%인 75명이었다. 30~40대 신부수를 더하면 167명으로 교구 소속 전체의 73.1%에 달한다. 이에 비해 50~59세가 30명으로 13.2%, 60~69세는 18명으로 7.9%, 70세 이상은 9명으로 3.9%를 나타냈다.

2008년 12월 31일 현재 국내 교구 소속 신부 가운데 가장 많은 연령대는 30~39세로 34.7%인 1천205명이었으며 그 다음이 40~49세로 1천118명(32.2%), 50~59세는 591명(17%), 60~69세는 303명(8.7%)순이었다.

주교회의 관계자는 "1980년대 전후로 성직자의 길을 자원하는 사람이 크게 늘어나 신학교 정원이 늘어나고 사제품을 받은 인원도 급격하게 증가했던 것과 관계가 있다"고 풀이했다.

불가에서는 아직까지는 50~60대 스님들이 많지만 30~40대 스님들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교 조계종이 지난달 내놓은 2008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체 승려(예비승 포함) 1만744명 가운데 가장 많은 연령대가 40~49세로 3천688명, 34.3%에 달했다. 30~39세는 1천388명(10.6%)로 60~69세에 이어 3순위였지만 만만치 않은 수였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4대강 수질 개선 4조원 투자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 하면서 중점유역의 수질개선을 위해 3조9천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투자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환경부 윤승준 물환경정책국장은 이날 경산시 경북테크노파크에서 열린 '환경의 날 기념 국제환경문제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국장은 "2012년까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위해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대강의 34개 중점유역에 수질개

선 사업비 3조4천억원과 하·폐수처리장 화학적처리시설 설치비 5천억원 등을 투자해 당초 2015년이던 '좋은 물' 달성목표를 조기에 이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4대강 중 가장 염도가 높은 영산강은 8개 중점유역 중 3곳을 집중관리하면서 영산강 상류권에 하수관거분류식화사업, 영산강 중·하류유역에 생태습지를 조성하는 등 테마사업을 펼치고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한다. /연합뉴스



사회적 기업 떴다

광주 전남 사회적기업 협의회 창립대회가 16일 광주 북구 광주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열리고 있다. 이 협의회는 광주·전남 지역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인준됐거나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105개 단체로 구성됐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국세청 직원 파면, 상부 개입 가능성"

광주지방국세청 간부 시사 ... 파문 확산

광주지방국세청이 한성사를 전 청장을 비판한 내부서신 직원 김동일(47.6급)씨를 파면한 것과 관련해 광주지방국세청의 한 간부 직원이 '상부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에 파장이 커지고 있다.

광주지방국세청 모 간부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태에 대해 광주지방청장이 너무 소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지방청장도 어쩔 수 없는,

정치적으로 미묘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정권과 관련해 말 못할 부분이 있다"고 밝히고 나서 입을 다물어 이번 직원 파면에 대해 국세청 본청이나 또 다른 압력의 개연성이 있음을 내비쳤다.

실제로 이번 사건 발생 초기부터 광주국세청 주변에서는 김씨의 중징계가 이미 예정돼 있으며 단순히 '비판 글'에 대한 징계 차원이 아니라 정

치적 성격에 따른 사건으로 본청과의 교감 속에 진행되고 있다는 추론이 잇따랐다.

김씨에 대한 이번 중징계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한 한성사를 전 청장의 책임론이 국세청 내부에 확산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세청에 대한 비판여론을 의식한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이날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의 규탄 기자회견과 민주당의 국세청 항의 방문 등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나온 광주지방국세청 간부의 '윗선 개입' 시사 발언의 파장이 주목되고 있다. /정필수기자 bung@kwangju.co.kr

빛이만평

- 김중두



고인 한마디에 별뿔처럼...

논·밭 담보 노후 생활비 타 쓴다

2011년 농지연금 도입

2011년부터 농업인들이 논·밭 등 농지를 담보로 노후 생활비를 타 쓸 수 있는 '농지연금'이 도입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농지연금은 농지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는 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다. 지원 대상자는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인 영농경력 5년 이상의 농업인이다. 소유 농지의 총면적도 3만㎡를 넘어서는 안 된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농업인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공사는 농지에 저당권을 설정해 연금을 지급한다. 가입 후 중도 탈퇴나 농지 가격 하락, 수명 연장 등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비와 위험 부담금이 부과된다.

지급 방식은 사망할 때까지 계속 받는 '종신형'과 10년, 20년 등 기간

을 정해놓고 받는 '기간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농지연금을 받은 농업인이 사망하면 그 배우자가 연금을 승계할 수 있다. 단 담보 농지의 소유권이전 등기, 농지연금 채무 인수를 거쳐야 한다. /연합뉴스

월드미스유니버시티

광주시, 지원 않기로

광주시는 16일 월드미스유니버시티(World Miss University)대회 조직위원회의 후원요청과 관련, "예산지원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날 "월드미스유니버시티 주최측이 최근 시에 대회에 대한 후원을 요청했지만, 타 시·도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민주·인권도시 이미지와 부합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해 예산지원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최종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문건설 양도양수 신청공고
(주)화신건설이 전문건설업을 양도함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자의견서를 제출바랍니다.
2009년 6월 17일

- 양도인 건설업의 종류: 일반건설업(전남 94-10-217호)
- 양도에정일: 2009년 07월 17일
-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기. 기. 간: 2009년 07월 16일 17:00한 나. 제출장소: 광주 서구 중앙동 918-12호 전남 순천시 서면 동산리 870-2번지 문화마을
- 양도자: 대표이사: 배 규 복 상 호: (주)화신건설 TEL: 062-663-0483 소 제 지: 전남 순천시 서면 동산리 870-2, 문화마을
- 양수자: 대표이사: 김 경 우 상 호: (주)태연건설 TEL: 062-663-0483 소 제 지: 광주 서구 중앙동 918-12호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공고 하오니 연구자 및 관리자에게는 다음 신고처로 신고하시고 개장하시기 위하여 공고 기간 내에 신고가 없거나 개장하지 않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 분묘로 간주하여 우리 군에서 임의 개장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 분묘 소재지 및 가수: 전남 고흥군 동이면 백암리 산 34-1번지 (무연분묘 2기) 전남 고흥군 동이면 백암리 1052-1번지 (무연분묘 1기)
- 개장사유: 동일 침장 - 외교간 군도 확포장공사 구간에 편입
- 개장방법: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 후 공고자 임의 개장 유연분묘: 연구자 또는 관리인과 협의 개장
- 개장장소: 공사구간 인근 분묘 구역에 도당
- 개장후 인체장소: 경북 김천시 공평면 공리 116번지 (총화남골)
- 공고기간: 2009. 06. 17 - 2009. 07. 17 (1개월)
- 신고 및 문의처: 고흥군청 건설과 (061-830-5488) 또는 동일면사무소 (061-830-6348)
- 신고시 구비서류: 분묘 연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증보, 제작증본, 개장 사실확인서 등)
- 기타: 공사구간 추가 분묘 발생시는 이 공고로 갈음함

2009. 06. 17
고 흥 군 수

무등빌딩임대

• 최상의 업무지역,
• 금융지역, 상업지역
• 지하철역세권
• 대형주차장
• 중앙공급식 냉·난방
• 탁월한 무등산 조망권

• 면적 330평 / 층 (분할임대 가능)
• 용도: 사무실, 판매시설

임대문의 062)412-6234

IPALG 종합특수방수

방수와 단열이 하나로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896503호)

IPALG 트라이슈머 복합단열시트 방수공법

- 방수뿐 아니라 뛰어난 단열기능까지 들어있습니다.
- 보형성이 탁월하고 우상바닥소음을 없애줍니다.
- 이중방수효과로 견고한 복합방수층을 형성합니다.
- 지공 바닥면의 진행성 크랙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열에 강해서 태양열에 의한 변형이 적습니다.
- 계절과 상관없는 전천후 시공이며 공사기간이 짧습니다.
- 신축건물에도 적합한 최고의 방수공법입니다.
- 선진국형 친환경 방수공법입니다.

무용제 우레탄 '코그스메' 도포
트라이슈머 시트
트라이슈머 베이스 카펫 (단열 및 보온층을 형성하여 여름철과 겨울철에 냉난방비를 절감)

이파엘지 트라이슈머 복합단열시트 방수 - 티렉스

무용제 우레탄 '코그스메' 도포
트라이슈머 시트
트라이슈머 베이스 카펫 (단열 및 보온층을 형성하여 여름철과 겨울철에 냉난방비를 절감)

IPALG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전남지사 (062)511-0444

홈/팩/이/지 **www.IPALG.com** 또는 '이파엘지.kr'
목포지점 (061)284-0485 순천지점 (061)726-0482
여수지점 (061)683-0485 광양지점 (061)795-0485